



# 보도자료

책임자 조영현 실장(금융시장분석실, 3775-9032)  
작성자 조영현 실장(3775-9032)  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3. 9. 27(수) 조간부터  
온라인 : 9. 26(화) 12:00부터  
매수 총 4매

## 보험연구원, 「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」 CEO Report 발간

“보험회사 CEO, 보험시장의 영업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며,  
소비자 신뢰 제고,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한  
보험산업 균형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”

-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(금융시장분석실장)과 최원 수석연구원은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및 경영지표 전망, 보험산업 평가, 경영전략 계획에 대하여 조사한 『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 보고서를 발표함
  - 이번 설문은 2023년 8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7일간 진행되었으며, 42명의 CEO 중 38명(생명보험 22명, 손해보험 16명)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90%임
- (경제환경 전망) 보험회사 CEO들은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함
  - 또한, 다수(65.8%)의 CEO는 2024년 평균 장기(국채 10년) 금리가 최근보다 하락한 3.0~3.4%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

<그림 1> 2024년 경기에 대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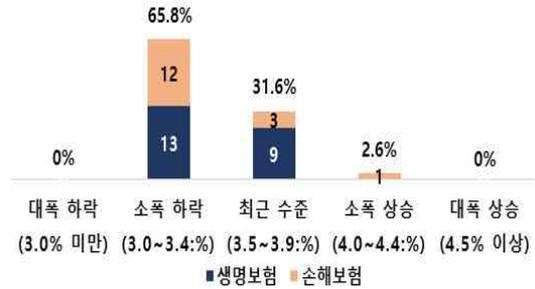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
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

<그림 2> 2024년 장기(국채 10년) 금리에 대한 전망

(단위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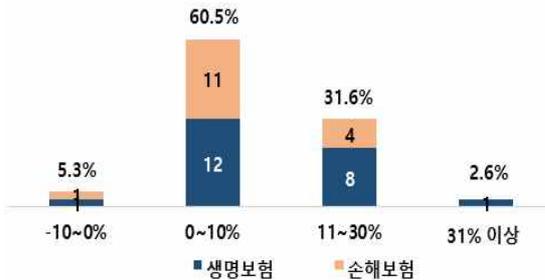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

○ (경영지표 전망) 보험회사 CEO의 대부분은 회계제도 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2024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

- 2024년 대부분(94.7%) CEO가 수익성 개선을 전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는 충분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(CSM)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
-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모두 자사의 CSM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며, 2024년 11% 이상의 CSM 성장률을 전망한 CEO 비중도 26.3%에 이룸

<그림 3> 2024년 당기순이익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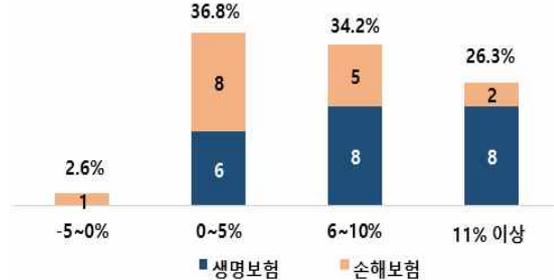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
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

<그림 4> 2024년 보험계약마진 전망

(단위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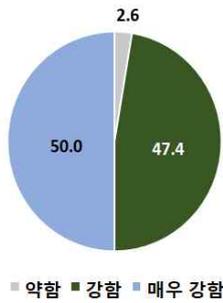
주: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을 한 CEO의 수임

○ (보험산업 평가) CEO들은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(26.1%)를 가장 많이 꼽음

- CEO들은 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가 영업 경쟁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함
- 소비자 신뢰 제고 이외에 보험모집 질서 확립(15.8%)과 신사업 확대(13.5%)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음

<그림 5> 영업 경쟁 수준 평가

(단위: %)



<그림 6> 보험산업의 해결 과제(순위형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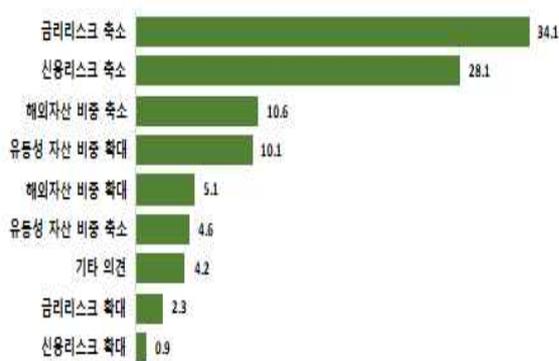


○ (경영전략 계획) 대다수 회사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·금융 환경에서 자산운용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으며,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을 우선적인 전략으로 꼽는 CEO가 증가함.

- 자산운용에 있어서 금리리스크 축소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34.1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신용리스크 축소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28.1%를 차지함
- 최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(32.9%)와 신상품 개발(21.1%)을 가장 많이 선택함
- 한편, 과반수(54.1%)의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,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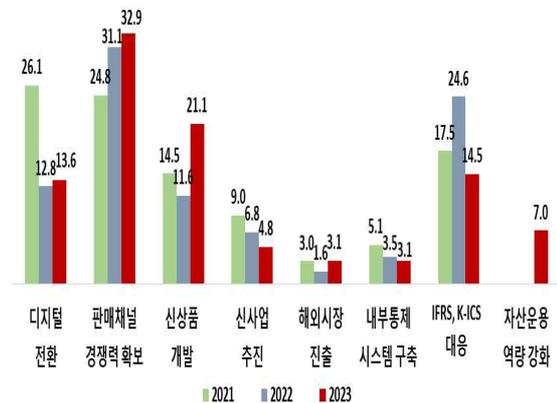
<그림 7> 2024년 자산운용 중점 전략(순위형)

(단위: %)



<그림 8> 최근 우선순위 전략(순위형)

(단위: %)



- 회계제도 전환 이후 영업경쟁이 확대되면서 CEO들은 상품개발과 판매전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, 한편으로는 소비자 신뢰 제고,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
  - 보유계약의 가치가 곧 기업가치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장래이익 확보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나,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는 지양해야 함
  - 아울러 보험회사는 전통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보장서비스 및 사업 발굴, 해외사업 진출 및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※ 첨부: CEO Report 『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』. 끝.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